



개막전 4번타자 이승엽 낙점

'아시아 홈런왕' 이승엽(30)이 31일 오후 6시 도쿄돔에서 벌어지는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개막전에서 최고 인기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타자 출장이 확정됐다.

요미우리 사상 70번째 외국인 선수로 세번째

통산 홈런 868개에 빛나는 오사다 하루(王貞治) 소프트뱅크 호크스 감독,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 등 일본을 상징하던 얼굴들이 거쳐간 요미우리의 4번 자리를 꿰차면서 이승엽은 일약 전구구 스타로 발돋움했다.

김상훈 투런·장성호 솔로포 팡!팡!

강철민 호투등 투타조화 시범경기 무패 LG 제압

KIA가 철저한 팀 배팅과 집중력으로 7연승을 내달리던 LG의 단독 질주를 가로막았다.
팬광한 0의 행진이 이어지던 3회말 KIA는 이용규가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를 뽑아내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Scoreboard table showing LG vs KIA results: LG 000 000 1000 | 1, KIA 001 030 00X | 4

이어나온 'WBC 4강 영웅 이종범'은 욕심내지 않고 2루수 앞에 밀어치는 철저한 팀 배팅으로 이용규를 3루에 안착시켰다. 1사 이후 타석에 들어선 장성호는 중견수 희생 플레이로 이날 첫 타점을 올렸고 이에 LG 선발 '용병' 텔레마코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5회에 들어선 KIA는 첫 타자 김경연이 중견수를 넘기는 3루타로 기세를 올리자, '안방마님' 김상훈이 텔레마코의 3구째 투심볼을 받아쳐 130m짜리 장외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이에 질세라 '42억 FA대박' 장성호도 우월 솔로포를 터트리며 1점을 보냈다. KIA는 30일 올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열린 LG와의 2006 프로야구 시범경기 11차전에서 선발 강철민의 호투와 김상훈, 장성호의 연속 홈런이 조화를 이뤄 시범경기 1위를 질주하던 LG를 4-1로 격침시켰다.

최근 시범경기에서 재구력 난조로 서정환 감독을 에타게 했던 강철민은 이날 6.1이닝 동안 안타 2개, 삼진 4개, 1실점하는 '쌍생투'를 선보이며 올 시즌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예약했다.

한편 두산은 현대를 5-4, SK는 삼성을 6-5로 꺾었고 한화과 롯데는 8-8로 비겼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0일 광주에서 열린 LG-KIA전에서 5회말 김상훈이 장외 투런포를 쏘아 올린 뒤 김경연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왼쪽). 이어 1사후 타석에 들어선 장성호도 우월 1점 홈런을 때리고 3루를 돌아서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최희섭 허벅지 통증

피츠버그 시범경기 결장

전날 왼 허벅지 근육통을 호소한 최희섭(27·보스턴 레드삭스)이 30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시범 경기에 결장했다.

이날 결장과 무관하게 미국 현지 언론은 최희섭이 5일 안에 마이너리그행 통보를 받아 트리플A 포터직 레드삭스에서 시즌을 맞

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날까지 보스턴 구단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보스턴 지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와 '보스턴 헤럴드'는 테리 프랑코나 보스턴 감독이 전날 신시내티전에 앞서 개막전 25인 로스터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보스턴 언론은 프랑코나 감독이 아직 최희섭에게 마이너리그행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마지막에 포터직으로 내려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KPGA 코리언 투어 국제연맹 가입 파란불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코리언투어의 국제프로골프투어연맹 가입에 파란불이 켜졌다.

한국프로골프협회 박삼구 회장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본부에서 열린 국제투어연

맹 연례회의에 참석해 각국 투어 대표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투어연맹은 PGA 투어, 유럽프로골프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 아시아프로골프투어, 호주프로골프투어 등 6개 국가 투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캐나다프로골프투어가 준회원이다. 국제투어연맹에 가입하면 코리언투어 대회 성격도 세계골프랭킹에 편입되면서 한국 선수들의 세계 무대 진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최재호 기자ion@

위성미 '性대결'

5번째...존디어클래식 초청

'1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남자골프대회에 다섯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AP통신은 위성미가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존디어클래식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다시 남자선수들과 대결을 펼치게 됐다고 30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위성미는 작년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으나 컷 기준선 3언더파 139타에 2타가 모자라 컷오프됐다.

지난 2월 소니오픈에도 출전했던 위성미는 존디어클래식까지 포함하면 5번째로 PGA 투어에 도전하게 된다.

대회조직위 클레어 피터슨 경기이사는 "위성미는 골프계 빅스타 중의 하나이며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한 플레이를 한다"고 평가한 뒤 "작년에 위성미가 나왔을 때 관중수와 자선기금도 크게 늘었다"며 위성미의 출전을 환영했다.

위성미는 "작년 이 대회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이 대회 출전을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ion@kwangju.co.kr



"박세리 오랜 만이야"

30일 캘리포니아 미션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 프로암대회 12번홀에서 박세리가 티샷을 한 후 공을 바라보고 있다.

Advertisement for water treatment services, featuring text like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원!'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주)비양주벽개발.

Advertisement for construction services, featuring text like '건설 면허의 모든 것' and '상업/양도·임수' with contact info for C&S.

Advertisement for water treatment and drainage services, featuring text like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and contact info for Drip Water Treatment.

Advertisement for a public speaking school, featuring text like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and '전국 1위 합격률 1위' with contact info for Seung Heung Gosihakwon.